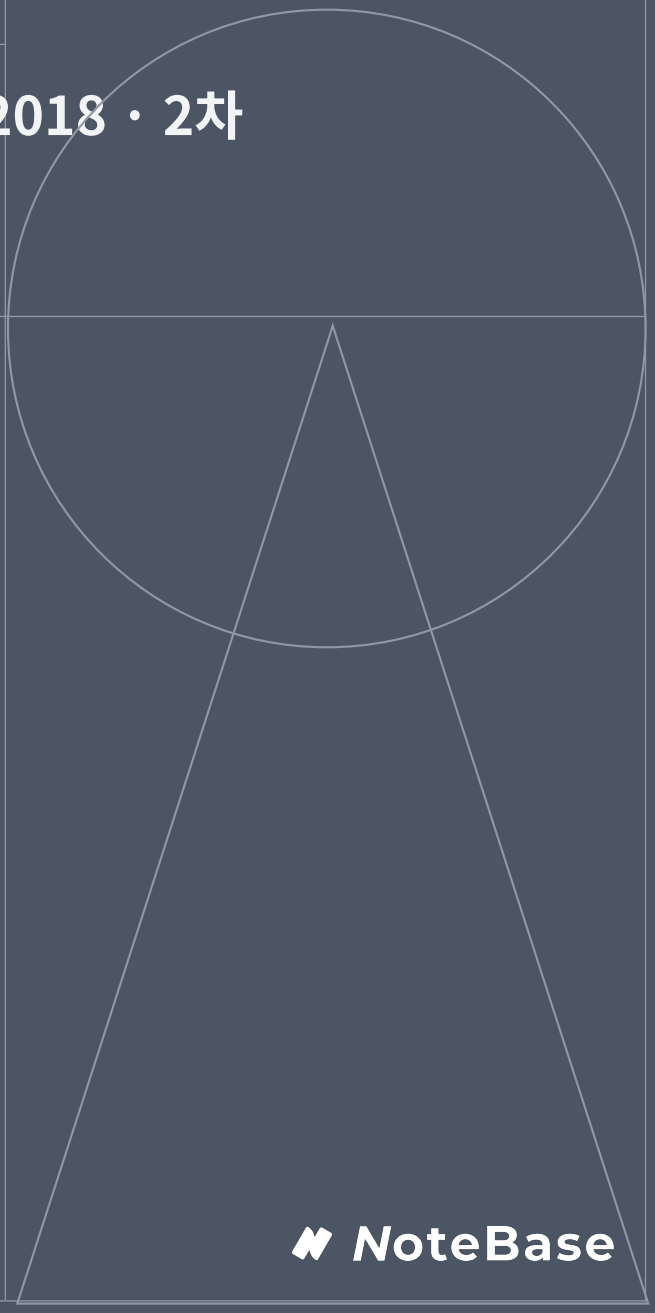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8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8 · 2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8 · 2차

문 1. 다음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은?

5,054,782,800

① 오 십억 오천사백칠 십팔만 이천팔 백

② 오십 억 오천사 백 칠십팔 만 이천팔 백

③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

④ 오십 억 오천사 백칠십팔만 이천 팔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글로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쓰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글로 수를 적을 때는 네 자리씩 끊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따라서 5,054,782,800은 50억·5,478만·2,800으로 나누어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으로 적는다. 각 만 단위 안의 수사와 단위는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오 십억', '칠 십팔만', '팔 백'처럼 하나의 수를 이루는 말을 잘못 띄었다. 올바르게는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이다.
② X — '오십 억', '오천사 백', '칠십팔 만', '팔 백'처럼 만 단위 내부를 잘못 띄었다. 올바르게는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이다.
③ O — 50억·5,478만·2,800의 만 단위 경계에서만 띄어 쓴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은 원칙에 맞는다.
④ X — '오십 억', '오천사 백칠십팔만', '이천 팔백'처럼 만 단위 내부를 잘못 띄었다. 올바르게는 '오십억 오천사백칠십팔만 이천팔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숫자의 쉼표가 찍힌 세 자리 단위마다 띄는 것이 아니라, 한글 수 표기에서는 네 자리인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점이 함정이다. ‘억’이나 ‘백’이라는 단위 명칭 앞을 임의로 띄우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숫자를 오른쪽부터 네 자리씩 묶어 억·만 단위의 덩어리로 바꾼 뒤, 덩어리 사이는 띄고 각 덩어리 안은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한글 수 표기는 세 자리 쉼표가 아니라 네 자리 만 단위로 띄어 쓴다.

NoteBase

문 2. 다음 <보기>의 외래어 표기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8년 해양경찰청 지휘부 ㉠워크샵
· 목적 : 해양경찰 지휘부의 ㉡리더쉽 신장
· 대상 : 총경급 이상
·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15:00-20:00
· 장소 : 4층 대회의실
· 식사 : 석식 제공(㉢부페)
· 내용 : 주제 강연, 모둠 토론, ㉣레크리에이션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영어에서 온 외래어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은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원어의 철자를 그대로 옮기거나 익숙한 발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적는다. 이 문항의 표준 표기는 '워크숍, 리더십, 뷔페, 레크리에이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워크샵'은 잘못된 표기이다. workshop의 표준 표기는 '워크숍'이다.
② X — '리더쉽'은 잘못된 표기이다. leadership의 표준 표기는 '리더십'이다.
③ X — '부페'는 잘못된 표기이다. buffet의 표준 표기는 '뷔페'이다.
④ O — '레크리에이션'은 recreation을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적은 표준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실제 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워크샵, 리더쉽, 부페'를 익숙하다는 이유로 표준 표기로 판단하기 쉽다. 익숙한 표기와 규범상 표준 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주 틀리는 외래어는 묶어서 표준형을 대조한다. ‘워크숍-리더십-뷔페-레크리에이션’ 가운데 제시된 형태가 표준형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워크샵·리더쉽·부페는 틀리고, 워크숍·리더십·뷔페가 맞다. 레크리에이션도 표준 표기이다.

NoteBase

문 3. 다음 문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은?

영미는 커서 결국 해양경찰이 되었다.

① 주어
② 보어
③ 관형어
④ 서술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인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와 이들을 꾸미는 부속 성분을 실제 문장 속 표현에 대응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고, 서술어는 그 주체의 동작·상태·성질을 풀이한다.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 앞에서 뜻을 보충하는 성분이며,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성분이다. 이 문장에서는 '영미는'이 주어, '해양경찰이'가 '되었다'를 보충하는 보어, '커서'와 '되었다'가 각각 서술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영미는'이 주어이므로 주어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이 주어이다'라는 판단은 틀리고, 올바르게는 '주어는 확인할 수 있다'이다.
② X — '해양경찰이'는 서술어 '되었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므로 보어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이 보어이다'라는 판단은 틀리고, 올바르게는 '보어는 확인할 수 있다'이다.
③ O —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가 문장에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이다.
④ X — '커서'는 앞 절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이고, '되었다'는 문장 전체의 주된 서술어이므로 서술어는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이 서술어이다'라는 판단은 틀리고, 올바르게는 '서술어는 확인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해양경찰이'의 조사 '이'를 주격 조사로만 보고 주어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되다' 앞에서 '무엇이 되다'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은 보어이다. 또한 '커서'는 연결 어미가 붙었어도 '크다'의 활용형이므로 앞 절의 서술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를 찾고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을 연결한다. '되다·아니다' 앞의 '이/가' 성분은 보어인지 확인하고, 체언을 꾸미는 말이 실제로 있는지 살피면 관형어의 존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영미는'은 주어, '해양경찰이'는 보어, '커서·되었다'는 서술어이며 관형어는 없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② 그는 길섶에 핀 코스모스를 보았다.
- 길섶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③ 나는 수영을 언제부턴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몽딴다.
- 몽따다 :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 한다

④ 그는 책장을 데면데면 넘긴다.
- 데면데면 :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속 밑줄 친 고유어의 뜻이 제시된 풀이와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해미는 바다 위에 끼는 짙은 안개이고, 길섶은 길의 가장자리이다. 몽따다는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는 뜻이며, 데면데면은 행동이 꼼꼼하거나 신중하지 않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해미'는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를 뜻하므로 풀이가 옳다.
② X — '길섶'을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이라고 풀이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길의 가장자리'이다.
③ O — '몽따다'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옳다. 문장에서는 수영이 화자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한다는 의미이다.
④ O — '데면데면'은 성질이나 행동이 꼼꼼하지 않아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을 뜻할 수 있으므로 풀이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길섶'의 뜻처럼 보이지만, '길섶'의 핵심은 길의 종류가 아니라 길의 가장자리라는 위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어휘는 문장의 분위기만으로 추측하지 않고, 풀이가 그 단어의 핵심 의미를 정확히 담는지 확인한다.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어떤 길인가'와 '길의 어느 부분인가'를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길섶은 골목길이 아니라 길의 가장자리이다.

NoteBase

문 5. 다음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① ㉠ : 使嗾
② ㉡ : 間涉
③ ㉢ : 缺陷
④ ㉣ : 剔抉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한자어의 정확한 한자 표기와 각 한자의 뜻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주(使嗾)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고, 간섭(干涉)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 참견한다는 뜻이다. 결함(缺陷)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흠을, 척결(剔抉)은 나쁜 요소를 도려내어 없앰을 뜻한다. 특히 간섭의 '간'은 '사이 간(間)'이 아니라 '방패 간·범할 간(干)'을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주는 使嗾로 쓴다. 使는 '시키다', 嗾는 '부추기다'라는 뜻이므로 적의 사주를 받아 행동했다는 문맥과 맞는다.
② X — 틀린 부분은 間涉이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 참견함'이라는 뜻의 간섭은 干涉으로 써야 한다.
③ O — 결함은 缺陷으로 쓴다. 缺은 '이지러지다·부족하다', 陷은 '빠지다·흠'의 뜻을 나타내므로 선박에 흠이 있다는 문맥과 맞는다.
④ O — 척결은 剔抉로 쓴다. 剔과 抉에는 도려내고 파낸다는 뜻이 있어 비리와 같은 나쁜 요소를 없앤다는 의미와 맞는다.

오답 포인트

'간섭'의 첫 음절 '간'을 익숙한 한자인 間으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사이'라는 뜻의 間이 아니라 남의 일에 끼어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干을 써서 干涉이라고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음만 맞추지 않고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각 한자의 뜻을 함께 대조한다. 특히 같은 음의 한자가 많은 단어는 의미를 풀어 본 뒤 표기를 결정한다.

암기 포인트

사주 使嗾, 간섭 干涉, 결함 缺陷, 척결 剔抉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6. 공문서의 표현을 쉽고 바르게 고쳐 쓴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정 기일 내에
→ 정한 날짜 안에

② 익년도
→ 다음 해

③ 재입찰에 부하고
→ 재입찰에 붙이고

④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게을리하거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문서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되, 문맥에 맞는 정확한 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문서는 뜻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꿀 때에도 원래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보존해야 한다. 특히 '부치다'는 안건이나 일을 일정한 처리 대상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 '회의에 부치다', '입찰에 부치다'처럼 쓰이고, '붙이다'는 서로 닿게 하거나 달라붙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정'은 정하여 놓은 바를 뜻하고 '기일'은 정해진 날짜를 뜻하므로, '소정 기일 내에'를 '정한 날짜 안에'로 바꾸면 뜻이 쉽고 분명해진다.
② O — '익년도'는 바로 다음 해를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다음 해'로 바꾼 표현이 알맞다.
③ X — 고친 표현의 '붙이고'가 틀렸다. 재입찰을 처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에서는 '부치다'를 써야 하므로, '재입찰에 부하고'는 '재입찰에 부치고'로 고쳐야 한다.
④ O — '해태하다'는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한다는 뜻이므로, '국유재산의 관리·보관을 게을리하거나'로 바꾼 표현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③의 '붙이고'는 발음이 같은 '부치고'와 혼동하기 쉽다. 입찰·회의·재판처럼 어떤 절차나 처리의 대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붙이다'가 아니라 '부치다'를 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려운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뀌었는지만 보지 않고, 바꾼 말이 원문의 뜻과 문맥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동음이의어는 목적어와의 결합을 살펴 '입찰에 부치다'처럼 관용적으로 맞는 표현을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안건·회의·입찰에는 '부치다', 물건을 맞닿게 할 때에는 '붙이다'이다.

NoteBase

문 7.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찬성 측 의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 방관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점차 냉혹하고 흉악해질 것이다.
㉢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과도한 법의 적용이다.
㉤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근거가 구조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데 찬성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 침해·판단 기준의 불명확성·과도한 법 적용을 들어 반대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찬성 근거는 구조하지 않는 행위의 사회적·윤리적 폐해와 법적 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대 근거는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 법 적용 기준의 모호함,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강조한다. 따라서 ㉡, ㉤, ㉥은 찬성 근거이고 ㉠, ㉢, ㉣은 반대 근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은 위험 상황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법적 조치의 어려움을, ㉣은 과도한 법 적용을 지적하므로 모두 반대 근거이다. 틀린 부분은 이 셋을 찬성 근거로 묶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 ㉢, ㉣을 반대 근거로 분류한다.

② X
㉡과 ㉤은 각각 방관 확산의 사회적 폐해와 공동체 유지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므로 찬성 근거이지만, ㉢은 판단 기준이 애매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반대 근거이다. 틀린 부분은 ㉢이며, 올바르게는 ㉥을 넣어 ㉡, ㉤, ㉥으로 구성한다.

③ X
㉡과 ㉤은 찬성 근거이지만, ㉣은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하므로 반대 근거이다. 틀린 부분은 ㉣이며, 올바르게는 ㉥을 넣어 ㉡, ㉤, ㉥으로 구성한다.

④ O
㉡은 방관자가 늘어날 때 생기는 사회적 폐해를, ㉤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 윤리의 법제화 필요성을, ㉥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인간의 도덕적 본분을 제시한다. 세 진술 모두 구조 의무에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근거가 된다.

오답 포인트

㉣의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정신'만 보면 찬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장의 결론은 '과도한 법의 적용이다'이므로 반대 근거이다. 각 문장의 소재보다 그 소재로 논제를 지지하는지 비판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논제의 결론인 '구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적 책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면 찬성, 자유 침해·기준의 불명확성·과잉 규제를 지적하면 반대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폐해·공동체 윤리·인간의 본분은 찬성이고, 자유 침해·기준 모호·과도한 법 적용은 반대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을 읽고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좋은 얼굴을 가져 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한두 달의 노력으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10년쯤 성의껏 애쓴다면 얼굴은 분명히 달라진다. 한 가지의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범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이다. 위대한 예술가나 탁월한 학자나 고매한 종교인의 얼굴에는 분명히 환한 빛이 있고 사람을 누르는 힘이 있다. 그것은 좋은 꽃에서 발하는 그윽한 향기와 같다.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일이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① A :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② B :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처럼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빛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어.

③ C : 이상의 실현을 위해 애써 온 사람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구나.

④ D :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좋은 얼굴을 갖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쓰면 얼굴은 달라질 거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내용과 표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화 내용이 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어는 겉으로 드러낸 뜻과 실제로 전달하려는 뜻이 서로 반대가 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글은 오랜 노력에서 생기는 위엄과 기품을 '빛'과 '향기'에 빗대어 나타내지만, 속뜻과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A의 말은 글의 끝에서 링컨의 말을 인용하여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② O — B의 '낭중지추'는 뛰어난 재능은 저절로 드러나 감출 수 없다는 뜻이다. 오랜 노력에서 우러나오는 빛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다'는 글의 내용과 연결된다.
③ X — C의 '반어적 표현'이 틀렸다. 글은 이상을 위해 오랫동안 애쓴 사람의 얼굴에 위엄과 기품이 감돈다고 직접 서술하고, 이를 안에서 우러나오는 '빛'과 꽃의 '향기'에 빗대어 강조한다. 올바르게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해야 한다.
④ O — D의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작은 노력도 오래 계속하면 큰 결과를 이룬다는 뜻이다. 적어도 10년쯤 성의껏 애쓰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글에 '빛'과 '향기' 같은 비유가 있다는 점을 놓치고 이를 반어로 잘못 규정한 선지이다. 반어는 말의 겉뜻과 속뜻이 반대여야 하지만, 이 글은 노력한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긍정적 변화를 그대로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 방법을 묻는 선지는 해당 문장이 실제로 그 표현의 성립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겉뜻과 속뜻이 반대이면 반어이고,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의 '빛'이나 '향기'에 견주면 비유이다.

암기 포인트

반어는 겉뜻과 속뜻의 반대이고, 비유는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대화에서 ㉠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낸 '방문객'의 대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해군의 규모를 협의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찾아왔다. "저는 해군 관계 일로 대통령을 뵈러 왔습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0분간 계속 이야기를 했다. 방문객은 가끔씩 그 말을 받아서 "그렇군요.", "아, 네." 등으로 응수할 뿐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문객이 돌아간 다음, 루스벨트는 몹시 기분 좋은 어투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저 사람처럼 훌륭한 능변가는 처음이야."

①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 주제를 설정한다.
②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 뒤 대화에 참여한다.
③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한다.
④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경청 전략이 대화 상대에게 주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방문객은 자신의 용건을 짧게 밝힌 뒤 루스벨트가 약 30분 동안 말하도록 두었다. 방문객은 '그렇군요.', '아, 네.'와 같은 반응으로 계속 듣고 있음을 나타냈고, 루스벨트는 그를 훌륭한 능변가라고 호평했다.

핵심 개념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맞장구나 반응을 통해 관심과 이해를 드러내는 대화 태도이다. 경청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하도록 하여 대화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든다.

적용 기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반응으로 듣고 있음을 표현했는지를 확인한다. 이 사례의 방문객은 말을 독점하지 않고 짧은 맞장구를 사용했으므로 경청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방문객이 상대방이 원하는 주제를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 주제를 설정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방문 목적을 간단히 밝힌 뒤 상대방이 말하도록 경청했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 방문객이 처음에 대화 목적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루스벨트의 호의적인 반응을 직접 이끌어 낸 핵심 전략은 목적 제시가 아니라 경청과 맞장구이다. '목적을 분명히 밝힌 뒤 대화에 참여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경청한다고 고쳐야 한다.
③ X — 방문객은 아무 반응 없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아, 네.'라고 응수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적절한 맞장구로 반응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 방문객은 루스벨트의 말을 오래 경청하고 짧게 호응하여 루스벨트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말하도록 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전략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방문객이 실제로 용건을 밝혔다는 점 때문에 정답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방문 목적 자체가 아니라 ㉠의 호평을 이끌어 낸 전략을 묻는다. 또한 ③의 '듣기만 한다'는 표현은 방문객이 짧은 맞장구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실을 놓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최종 반응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을 찾는다.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고 맞장구로 관심을 표현했다면 경청 전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청은 침묵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적극적인 대화 행위이다.

NoteBase

문 10.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글쓰기 계획>
· 현상: 우리 회사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 문제 의식: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직원들의 기부 참여 유형
·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 결과 분석: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임.
· 서술 방향: (㉠)

① 직원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②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③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④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쓰기 계획의 조사 결과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서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현상에서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한다.
2. 조사 결과에서 기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참여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3. 결과 분석에서 그 괴리의 원인이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제시한 점을 서술 방향과 연결한다.

핵심 근거

직원들은 기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미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무관심이나 실천 의지 자체가 아니다. 참여 유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참여가 제한된 것이므로, 다양한 기부 유형과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은 계획과 일치하지만,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는 조사 결과나 결과 분석에 제시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X — 조사 결과 직원들의 기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므로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다양한 기부 유형에 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참여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③ X — 인식과 참여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 원인은 실천 의지 부족이 아니라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분석되어 있다. 올바르게는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하기보다 다양한 기부 유형과 참여 방법을 소개해야 한다.
④ O — 낮은 참여도의 원인을 다양한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므로 조사 결과와 결과 분석에 정확히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근거 없는 개인적 선호를 덧붙이고, ②는 높은 인식을 무관심으로 바꾸며, ③은 정보 부족을 의지 부족으로 바꾼다. 현상만 비슷한지를 보지 않고 조사 결과가 밝힌 원인과 해결 방향까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상 → 조사 결과 → 원인 분석 → 해결 방향'의 연결을 차례로 확인한다. 서술 방향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새로 넣지 않고, 결과 분석에서 밝혀진 원인을 해결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인식은 높고 참여 유형은 적다 → 원인은 정보 부족 → 다양한 유형과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① 화가 난 오빠는 괜시리 샌드백을 투덕거렸다.
② 에게, 이까짓 것을 어디다 쓰라고 그러는 거야?
③ 아들이 어느새 잼잼과 곤지곤지를 하기 시작했다.
④ 갑자기 찾아온 그는 짐도 없이 단촐한 차림이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나 일상적 사용에 이끌리지 않고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의 정확한 표기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 표기는 익숙하게 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규범상 인정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문항에서는 '에게'가 바른 표기이며, '괜시리·잼잼·단촐한'은 각각 '괜스레·죄암죄암·단출한'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괜시리'는 바른 표기가 아니다. '별다른 까닭이나 실속이 없게'를 뜻하는 말은 '괜스레'로 적으므로 '화가 난 오빠는 괜스레 샌드백을 투덕거렸다.'로 고친다.
② O — '에게'는 뜻밖의 일을 보고 가볍게 놀라거나 탐탁하지 않게 여길 때 내는 감탄사의 바른 표기이다.
③ X — '잼잼'은 바른 표기가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게 할 때 쓰는 말은 '죄암죄암'이므로 '아들이 어느새 죄암죄암과 곤지곤지를 하기 시작했다.'로 고친다.
④ X — '단촐한'은 바른 표기가 아니다. 차림이 간편하다는 뜻의 형용사는 '단출하다'이므로 '갑자기 찾아온 그는 짐도 없이 단출한 차림이었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괜시리', '잼잼', '단촐한'은 실제 발음이나 구어에서 익숙하게 들려 바른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단촐하다'가 아니라 '단출하다'라는 점과, '잼잼'의 규범 표기가 '죄암죄암'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리 나는 대로 익숙한지를 따지지 않고 기본형과 표준어 표기를 확인한다. '에게'는 그대로 쓰고, '괜시리→괜스레', '잼잼→죄암죄암', '단촐하다→단출하다'의 대응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에계는 맞고, 괜스레·죄암죄암·단출하다가 표준어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 온
청년 넷이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다가
저녁 무렵 도심 지하보도에서
처음 한국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공연 준비를 마치자
노인네들이 몰려와 둘러섰다

기타는 스리랑칸 베이스는 비에트나미즈
드럼은 캄보디안 신시사이저는 필리피노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연주자들은
낡은 악기로 로큰롤을 연주했다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고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다른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댔다

막춤을 신 나게 추던 노인네들은
연주자들이 브루스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얼떨떨해하다가
노인 한 분과 노파 한 분
다른 노인 한 분과 다른 노파 한 분
양손으로 살포시 껴안고
양발로는 엇박자가 나도 돌았다

미소 짓던 동남아 청년 넷은
저마다 고국에 계신 노부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정성껏 연주하고
노인네들은 저마다 자식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적 없었다 싶으니
더 흥겹게 춤을 추었다

- 하종오, 「밴드와 막춤」 -

NoteBase

① 설의적 표현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연의 흥겨움을 점층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④ 밴드와 노인들이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실제로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지문의 구체적인 구절에서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이미 정해진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반복은 비슷한 문장 구조나 어구를 되풀이하여 운율과 의미를 강화하는 방식이고, 점층은 내용이나 정서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 시에는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과 같은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설의적 표현으로'이며, 올바르게는 동남아 청년들과 노인들이 서로의 부모와 자식을 떠올리며 교감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드러낸다고 해야 한다.
② O —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 다른 노인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고',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대자 / 다른 노파 한 분 나와서 몸 흔들어 댔다'처럼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된다.
③ O — 공연 준비에서 로큰롤 연주와 막춤으로, 다시 블루스에 맞춘 짝춤과 더욱 정성스러운 연주·흥겨운 춤으로 장면이 이어진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연 참여와 교감이 깊어지므로 흥겨움이 점층적으로 확대된다.
④ O — 청년들은 고국의 노부모를, 노인들은 자식들을 떠올린다. 서로 다른 처지의 두 집단이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마음을 매개로 동질감을 느끼며 연주와 춤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오답 포인트

작품에 공동체적 유대감이 드러난다는 점만 보고 ①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는 표현 방식과 효과가 모두 맞아야 하며, 이 시에는 설의적 표현의 근거가 되는 의문문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 방식에 관한 선지는 먼저 지문에서 해당 형식의 실제 근거를 찾는다. 설의법은 의문문의 형식, 반복은 되풀이되는 어구나 문장 구조, 점층은 장면이나 정서의 단계적 강화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제가 맞더라도 표현 방식의 근거가 없으면 틀린 선지이다. 설의법은 반드시 의문문의 형식이 드러난다.

NoteBase

문 13. 다음 <보기>는 극장 매표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손님 : 영화 보려고 하는데요.
· 직원 : ㉠지금 보실 수 있는 영화는 8시에 상영하시고요. 회원 카드 가지고 있으세요?
· 손님 : 없는데요.
· 직원 : 회원 카드 만드시면 포인트가 적립되시고요. ㉡나중에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도 있으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으세요.
· 손님 : (고개를 젓는다)
· 직원 : 1관은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보이십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① ㉠: 주체 높임법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어색한 느낌을 준다.

② ㉡: 서술어에 쓰인 '-시-'는 '손님'을 존대하는 요소이다.

③ ㉢: 서술어 하나에만 '-시-'를 사용하여 존대 의사를 약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어말 어미 '-시-'가 실제로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지, 사물까지 잘못 높인 간접 높임 표현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실현한다. '-시-'의 개수로 존대의 강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손님과 관련된 영화·상영관·시간 같은 사물을 주체로 삼아 '-시-'를 붙이면 그 사물을 높이는 어색한 간접 높임 표현이 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보실 수 있는’의 주체는 손님이므로 ‘-시-’가 적절하지만, ‘영화는 8시에 상영하시고요’에서는 주체가 영화이다. 높임 대상이 아닌 영화를 ‘-시-’로 높였으므로 주체 높임법을 과도하게 사용한 어색한 표현이다.
② O — ‘이벤트에 참여하다’와 ‘혜택을 누리다’의 생략된 주체는 손님이다. 이 서술어들에 쓰인 ‘-시-’는 손님을 높이는 요소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서술어 하나에만 ‘-시-’를 사용하여 존대 의사를 약하게 드러낸다’이다. ‘-시-’의 사용 횟수는 존대 의사의 강약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돌면’의 주체는 손님인데 ‘-시-’가 없고, ‘보이십니다’의 주체는 1관인데 오히려 ‘-시-’가 붙었다. 올바르게는 ‘오른쪽으로 도시면 보입니다’라고 한다.
④ O — ‘즐거운 시간 되세요’는 높임 대상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시-’로 높인 어색한 표현이다. 손님을 ‘보내다’의 주체로 삼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시-’가 몇 번 쓰였는지를 존대의 강약과 연결한 데 있다.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각 서술어의 주체가 높임 대상인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가 보이면 먼저 해당 서술어의 주체를 찾는다. 주체가 사람인 높임 대상이면 적절하고, 영화·상영관·시간 같은 사물이면 손님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적절한 간접 높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는 횟수가 아니라 주체를 본다. 사람은 높이고 사물은 높이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떡하든 그가 그의 이십 등, 삼십 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____)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들도 합세를 해 주었다.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중에서

① 고립감
② 연대감
③ 절망감
④ 사명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행동과 앞뒤 문맥을 근거로 빈칸에 알맞은 정서적 태도를 찾는 문제이다. '그가 주저앉는 것을 보면 나도 주저앉을 듯하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꼴찌 주자와 자신의 처지를 연결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핵심 개념

연대감은 다른 사람과 처지·감정·운명을 함께한다고 느끼는 마음이다. 화자는 꼴찌 주자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처럼 느끼므로 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버티려는 연대감을 보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고립감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이다. 화자는 주자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그의 좌절을 자신의 좌절처럼 받아들이므로, '고립감'이 아니라 '연대감'이 알맞다.
② O — 연대감은 타인과 처지나 감정을 함께한다고 느끼는 마음이다.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이라는 구절은 화자가 꼴찌 주자와 자신을 하나로 연결해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X — 절망감은 희망을 잃고 낙담하는 감정이다. 화자는 주자의 완주를 바라며 박수와 환성으로 힘을 보태고 있으므로, '절망감'이 아니라 주자와 함께 버티려는 '연대감'이 알맞다.
④ X — 사명감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나 책임을 반드시 수행하려는 마음이다. 화자가 환호한 까닭은 의무를 수행해야 해서가 아니라 주자의 좌절을 자신의 좌절처럼 느꼈기 때문이므로, '사명감'이 아니라 '연대감'이 알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본문에 '괴롭고 고독하지만', '내 고독한 환호'가 있어 ① 고립감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의 직접 근거는 고독이라는 낱말이 아니라 '그가 주저앉으면 나도 주저앉을 듯하다'는 연결 의식이므로 연대감이 정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의 감정어만 찾지 않고 인물의 행동 원인과 대상과의 관계를 함께 본다. 타인의 실패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문맥이면 연대감, 타인과 단절되어 혼자라고 느끼는 문맥이면 고립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남과 떨어져 있으면 고립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함께 느끼면 연대감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글을 읽고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 기형도, 「빈집」 -

① ㉠: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 화자를 비유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④ ㉣: 공허하고 폐쇄적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구에 나타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표현 방식 및 시적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시구의 의미는 특정 표현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시 전체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시의 화자는 이미 사랑을 잃은 뒤 지난 시간과 열망에 작별을 고하며 상실감과 절망감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사랑을 잃고’라는 표현이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직접 제시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주변을 정리하는’이다. 화자는 이별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잃은 뒤 ‘잘 있거라’라고 말하며 지난 밤, 겨울 안개, 촛불, 눈물, 열망 등에 작별을 고한다.
③ O — ‘장님처럼’은 화자를 장님에 빗댄 직유이며, ‘더듬거리며’와 결합하여 사랑을 잃고 앞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을 표현한다.
④ O — ‘빈집’은 공허한 공간이고 ‘갇혔네’는 폐쇄성을 드러낸다. 이 공간에 사랑이 갇혔다고 표현하여 상실 이후의 절망감을 부각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잘 있거라’를 이별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첫 행의 ‘사랑을 잃고’가 이별이 이미 일어났음을 밝히므로, 이어지는 작별의 말은 사전 준비가 아니라 상실 이후의 고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구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먼저 사건의 선후 관계를 확정하고, 비유어와 공간어가 화자의 처지 및 정서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랑을 잃고’는 이미 발생한 상실, ‘잘 있거라’는 상실 이후의 고별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生死 길흔
이에 이샤매 머믓그리고,
나ᄂᆞ 갂ᄂᆞ다 말ᄉᆞ도
몯다 니르고 가ᄂᆞ닛고.
어느ᄀᆞ술 이른ᄇᆞᄅᆞ매
이에 뎌에 ᄠᅳ러딜 닙ᄀᆞ,ᄂᆞᄃᆞ
ᄒᆞᄃᆞ 갂지라 나고
가논 곧 모ᄃᆞ 룓뎌.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 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

① "어느 ᄀᆞ술 이른 ᄇᆞᄅᆞ매 이에 뎌에 ᄠᅳ러딜 닙ᄀᆞ"은 누이의 요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② 화자는 삶의 허무함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마지막 두 행에 삶의 무상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④ 향가의 10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월명사의 「제망매가」에 나타난 비유, 주제 의식, 종교적 태도와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애도하면서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슬픔을 불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작품이다. 마지막 두 행은 무상감의 표출에 머무는 부분이 아니라 불도를 닦아 극락에서 재회하겠다는 종교적 극복 의지를 나타낸다. 형식상 10구체 향가이며,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아야'가 시상을 전환하고 정서를 집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는'은 같은 가지에서 난 잎이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에 빗대어 누이의 이른 죽음을 표현한다.
② O —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과 삶의 무상감을 '미타찰'에서의 재회와 '도 닦음'이라는 불교적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③ X — 틀린 표현은 '마지막 두 행에 삶의 무상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이다. 마지막 두 행은 미타찰에서 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종교적 극복 의지를 나타낸다. 삶의 무상함은 앞부분의 죽음과 낙엽의 비유에서 주로 드러난다.
④ O — 이 작품은 전체 10구로 이루어진 10구체 향가이며, 마지막 두 구가 감탄사 '아야'로 시작하는 낙구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작품 전체에 삶과 죽음의 무상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지막 두 행의 기능과 혼동하기 쉽다. ③의 '마지막 두 행'은 무상감을 반복하는 대목이 아니라 미타찰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며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대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특정 구절을 묻는 선지는 작품 전체의 주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구절의 직접적인 시어를 확인한다. '이른 바람·떨어질 잎'은 요절과 무상감, '미타찰·도 닦음'은 종교적 극복과 재회의 소망으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은 누이의 요절, 미타찰과 도 닦음은 불교적 극복, '아야'는 10구체 향가의 낙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자(李子, 이규보)가 남쪽으로 어떤 강을 건너는데, 때마침 배를 나란히 해서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두 배의 크기도 같고 사공의 수도 같으며, 배에 탄 사람과 말의 수도 거의 비슷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배는 나는 듯이 달려서 벌써 저쪽 언덕에 닿았지만, 내가 탄 배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는 사공에게 술을 먹여서 사공이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기 때문이오."
하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탄식하기를,
"아, 이 조그마한 배가 가는 데도 오히려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 지속, 선후가 있거늘 오늘날까지 하급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당연하구나."
하였다. 이것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

- 이규보, 「주뢰설」

① 뇌물로 부패한 현실의 세태를 주제 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사건의 이치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③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공통된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양식으로 유추에 의한 사고 전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구체적인 체험에서 사회 현실에 대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설(說)의 전개 방식과 주제 의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說)은 사물이나 사건의 이치를 풀이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는 한문 산문이다. 이 글은 뇌물을 받은 사공의 배가 더 빨리 가는 사건과 뇌물이 작용하는 관직 진출을 견주어, 뇌물로 부패한 세태를 비판한다. 이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유추이지만, 부패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뇌물인 술을 받은 사공이 힘껏 노를 젓는 모습과 관직을 얻는 현실을 연결하여, 뇌물이 작용하는 부패한 세태를 비판한다.
② O — 두 배의 속도가 달라진 사건에서 뇌물의 유무가 결과의 빠르고 느림과 앞섬·뒤처짐을 좌우한다는 이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관직 진출에 관한 견해를 드러낸다.
③ X — 틀린 표현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이다. 글쓴이는 깨달은 바와 현실 비판을 탄식의 형식으로 드러낼 뿐, 부패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깨달은 바를 제시하여 뇌물이 작용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이다.
④ O — 배가 나아가는 일과 관직에 진출하는 일에서 뇌물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공통점을 찾아 두 대상을 비교하므로, 유추에 의한 사고 전개가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③의 '깨달은 바를 직설적으로 제시'에만 주목하면 적절한 설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과 현실 비판을 드러내는 것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며, 이 글에는 부패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분리해 확인한다. 글에 비판이나 깨달음이 나타나더라도 대책·행동·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배의 운행과 관직 진출을 뇌물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한 유추이며, 현실 비판은 있지만 해결 방안은 없다.

NoteBase

문 18.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신어(新語) 중에는 기존의 단어 형성 방식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도 많다. 예를 들어, '고시텔'은 기존에 쓰이던 단어 '고시'에 영어 단어 'hotel'의 'tel'이 덧붙어 생긴 말이다. 이때 'tel'은 본래는 접미사가 아니던 것이 신어에서는 마치 접미사처럼 쓰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① 소개팅
② 클릭질
③ 전시룸
④ 투잡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존 단어의 일부를 떼어 내어 본래 접미사가 아니던 요소를 접미사처럼 결합한 신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시텔'은 '고시' 뒤에 '호텔(hotel)'의 뒷부분인 '텔(tel)'을 붙인 말이다. 핵심은 뒤에 붙은 요소가 원래부터 접미사였던 것이 아니라, 기존 단어의 일부가 잘려 나와 신어에서 접미사처럼 쓰였다는 점이다. '소개팅'도 '소개' 뒤에 '미팅(meeting)'의 뒷부분인 '팅(ting)'을 붙여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개팅'은 '소개'에 '미팅'의 뒷부분 '팅'을 붙인 말이다. 본래 접미사가 아닌 단어의 일부가 접미사처럼 결합했으므로 '고시텔'과 형성 방식이 같다.
② X — '클릭질'의 '-질'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뜻을 더하는 기존 접미사이다. 틀린 부분은 '-질'이 다른 단어에서 새로 잘려 나온 요소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클릭+접미사 -질'의 결합이다.
③ X — '전시룸'의 '룸'은 영어 'room' 전체가 차용되어 쓰인 말이지, 어떤 기존 단어의 뒷부분만 떼어 낸 요소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룸'을 잘려 나온 접미사적 요소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전시+룸(room)'의 결합이다.
④ X — '투잡족'의 '-족'은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도록 이미 여러 말에 붙어 쓰이는 요소이다. 틀린 부분은 '-족'이 다른 단어의 뒷부분을 잘라 새로 만든 요소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투잡+-족'의 결합이다.

오답 포인트

외래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고 '전시룸'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기준은 외래어 여부가 아니라, 뒤 요소가 원래 단어 전체인지 또는 기존 접미사인지, 아니면 다른 단어의 뒷부분을 잘라 접미사처럼 쓴 것인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뒤에 붙은 요소의 출처를 확인한다. 그 요소가 다른 완전한 단어의 일부를 잘라 만든 것이고 앞말에 반복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접미사처럼 쓰였다면 '고시텔'과 같은 형성 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호텔→텔, 미팅→팅: 단어의 뒷부분이 접미사처럼 쓰인 신어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른 것은?

① 나는 쌀뜻물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있었다.
② 그는 밥솥에 눌어붙은 누른밥으로 요리를 했다.
③ 나는 소쿠리에 음식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다.
④ 온종일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주 틀리는 고유어의 표준 표기와 용언의 활용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어의 실제 발음이나 익숙한 형태만 따르지 않고 표준어의 기본형과 활용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쌀뜨물', '눌은밥', '소쿠리', '흐리멍덩하다'가 각각의 바른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쌀뜻물'은 잘못된 표기이다. 쌀을 씻고 난 뿌연 물은 '쌀뜨물'로 적는다.
② X — '누른밥'은 잘못된 표기이다. '밥이 눋다'의 어간이 활용된 말이므로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은 '눌은밥'으로 적는다.
③ O — '소쿠리'는 대나 싸리 등으로 엮어 만든 둥근 그릇을 뜻하는 표준어이며 표기도 바르다.
④ X — '흐리멍텅'은 잘못된 표기이다. 정신이 맑지 못하고 흐릿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흐리멍덩하다'이므로 '흐리멍덩해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뜻', ②의 '누른', ④의 '텅'은 발음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표준 표기가 아니다. 특히 ②는 '누르다'와 연결하지 말고 기본형 '눋다'의 활용형 '눌은'을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유어 표기 문제에서는 익숙한 발음대로 고르지 않고 기본형과 표준어 형태를 대입한다.
'쌀뜨물·눌은밥·소쿠리·흐리멍덩하다'처럼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문장 속 활용형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쌀뜨물은 '뜨', 눌은밥은 '눌은', 흐리멍덩은 '덩'으로 적는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당신과 <보기>의 화자 간의 공통점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이봐…… 나, 배고픈디. 뭐 좀 먹었으믄 좋겄는디.
당신은 헛간에 놓여 있는 빈 평상을 향해 웅얼거렸다. 고추 꼭지를 따거나 깻잎을 개거나 배추를 간하다가도 당신이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저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 곁으로 와서는 산에 땅두릅이 났길래 좀 캐 왔는디 두릅전 부쳐 볼까? 자실라요? 하던 아내. 그때는 왜 그것이 평화롭고 복된 일이란 걸 몰랐을까.
아내한테 미역국 한번 끓여줘 본 적 없으면서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은 어찌 그리 당연하게 받기만 했을까.
언젠가 읍내에 나갔다 온 아내가 거, 시장통의 당신 잘 가는 정육점 있잖우. 오늘 고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아낙이 자꾸 나를 불러서 들어갔더마는 미역국을 먹고 가라길래 웬 미역국이냐 했더니 오늘이 생일인디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다 합디다, 했다. 당신이 그저 듣고 있으니 맛이 있었던 건 아니요! 그란디 첨으로 정육점 아낙이 부럽던디요, 그랬다. 당신의 메마른 눈이 껌벅거렸다. 어디에 있소……. 아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미역국이 아니라 전도 부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벌주는가…….
당신의 메마른 눈에 물기가 어렸다.

당신은 이 집을 내키는 대로 떠났다가 돌아오면서도 아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중에서

<보기>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NoteBase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① 지금 곁에 없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② 평소 잘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③ 눈물의 심상을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④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대상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두 글의 인물이 부재한 대상을 대하는 정서와 그 정서가 드러나는 표현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통점은 두 글 모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작품 속 행동·독백·심상을 각각 확인하되, 한쪽에만 나타나는 정서를 공통점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두 인물 모두 지금 곁에 없는 아내를 찾고 그리워한다. '당신'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빈 평상을 향해 말하고, <보기>의 화자는 '어디로 갔나'를 되풀이하며 부재한 대상을 찾는다.

② X
'평소 잘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당신'에게만 분명히 나타난다. '당신'은 아내에게 미역국 한 번 끓여 주지 않고 받기만 했던 일을 후회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갑자기 사라진 대상을 찾으며 상실감과 막막함을 드러낼 뿐 평소 잘해 주지 못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당신은 평소 아내에게 잘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보기>의 화자에게서는 그러한 후회가 드러나지 않는다'이다.

③ O
두 글 모두 눈물과 연결되는 물의 심상으로 슬픔을 깊게 한다. '당신'의 메마른 눈에 물기가 어리고, <보기>에서는 어둠을 적시는 비와 앞을 가리는 빗발이 화자의 상실감과 막막함을 심화한다.

④ O
두 인물은 익숙한 일상 속에서 대상의 부재를 실감한다. '당신'은 아내가 해 주던 음식과 집안일을 떠올리며 빈자리를 깨닫고, <보기>의 화자는 차려진 밥상 앞에서 대답 없는 사람을 거듭 부르며 부재를 확인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후회'는 '당신'의 정서라는 점이 함정이다. <보기>에도 그리움과 상실감은 나타나지만, 과거에 잘해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나 후회의 근거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선지의 핵심 정서어를 두 작품에 따로 대입한다. 한 작품에서만 직접 확인되는 정서라면 공통점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그리움·눈물·일상 속 부재는 공통이고, 잘해 주지 못한 후회는 '당신'에게만 나타난다.

NoteBase